



“지역 사회 보건 학습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”

라팔마 <꿀약국> 약사 권 앤젤라



▲ <꿀약국> 권 앤젤라 약사

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

제 이름은 권 앤젤라입니다.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생애 첫 일 년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.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콜로라도의 록키 산맥에서 보내면서 약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.

미국에서 혼한 1세대 이민 부모 아래서 자란 많은 이들과 같이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보험, 은행, 건강 관련 문제 등 가정의 모든 측면을 통역하는 업

무를 도맡아서 해왔습니다.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의 겪고 있는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어릴 적부터 몸에 익숙해졌습니다.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

약사가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의학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제 소망과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꿈을 둘 다 이룰 수 있게 해주는, 한 돌로 두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직업이었습니다. 약사로서 저는 모든 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전문 의 학인이며, 건강 유지 및,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저는 콜로라도 약학대학 (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Pharmacy)에서 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다양한 약국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. 카이저(Kaiser Permanente)에서 10년 동안 의학 약사로 일하면서 약학과 약학의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많은 통찰력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큰 회사에서 10년 안 경험을 쌓은 후,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민 로렌과 저는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플랫폼에서 한인 사회에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했고, 그리 하여 <꿀약국(Honey Pharmacy)>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

■ 당신이게 <꿀약국>은 무슨 의미입니까?

저에게 <꿀약국>은 단순한 약국이나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고, 저의 꿈을 이루게 해 주는 무대입니다. <꿀약국>이라는 이름은 성경 신명기 11: 8 -12절의 구절을 기반으로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기업 세계에서 수년간의 훈련과 일을 통해 우리를

준비시켜 주셨고, 이제 우리가 이 “약속의 땅” 에 올 수 있게 해 주셨고, 저는 이 플랫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.

저에게 <꿀약국>은 제가 수년간 습득한 기술을 사용하여 약에 대한 지식 및 건강 조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따뜻함, 보살핌, 가족과 같은 사랑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.

■ <꿀약국>의 슈퍼 파워(가장 특별한 점)은 무엇인가요?

Super Passion / Fire: 슈퍼 열정! <꿀약국>은 열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. 약 10년 동안 기업에서 일 하면서 로렌과 저는 약사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지만 기업의 시스템이 가져오는 한계도 배웠습니다. 이러한 한계는 저희가 처음에 꿈으로 가득 찬 약사로서의 열정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었습니다.

제가 꿈꾸는 약사의 삶은, 단순히 약을 준비하고 판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환자를 알아가고 그 환자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도움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약과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도 있지만, 환자가 어려움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정한 환자 중심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.

저는 <꿀약국>을 시작함으로써 제가 기업 세계에 놀러두어야 했던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열정을 통해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알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.



▲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민 로렌 약사와 함께.

